

## 대도시 가정의 생활행위 공간의 변화

-1992년과 2000년의 비교를 중심으로-

### The Change of the Living Space in 1992 and 2000

-Focus on the Activities of Daily Living and Family Events in Seoul -

신경주\*      장상옥\*\*

Shin, Kyung Joo      Jang, Sang Ock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trend of the room where activities of daily living and family events(activities of non-daily living) were performed with time. Research data was collected in 1992 and 2002 from households living in Seoul that have university student by using questionnaire surveys. Data was analyzed using the SPSS package program.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Living room was a multi-purpose space for various activities: receiving guests, family communication, ironing, sewing and dining as well as a kitchen. Anbang(master bed room) is the place where the couple sleeps. The room's purpose has changed from a multi-purpose space to a private space. 2) Most of the families performed the majority of the family events in the living room and Anbang. In the past, traditional events and birthday parties were performed in Anbang, but currently the trend has changed. This would mean that with time the majority of the family events were held in the living room. 3) Space planning is required to meet the dwellers' use of living room and Anbang.

Keywords: Activities of daily living, Family events(activities of non-daily living)

#### I. 서론

서구문화의 유입과 함께 우리나라 주거 공간의 기능도 변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개화기에 개

\*정회원, 한양대학교 실내환경디자인학과 교수

\*\*정회원, 경상대학교 가정교육과 강사

실이 도입되는 시기를 거쳐서 마루가 거실의 개념으로 바뀌었고, 1960년대 아파트에 거실이 들어오면서 서구적 공간이 우리 주거에 자리잡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서구화는 여러 방면에서 진행되었다. 이 중 주택을 살펴보면 거실 중심의 집합주택의 정착으로 전통적 공간인 안방과 서구적 공간인 거실이 동

시에 존재하는 주거 형태가 우리 주거의 일반적인 형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이러한 공간 구성의 변화에 따라 우리의 주생활 행위도 변화하고 있다. 즉, 일상생활행위와 가정행사(비일상적인 생활행위)의 공간이 변화하고 있는데 이 변화는 주거공간계획에 영향을 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거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생활행위와 가정행사의 공간과약 및 시대변화에 따른 공간 변화를 살펴서 앞으로 주거 계획 시 공간에 대한 방향 제시에 도움을 주고자 하며,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일상생활행위 공간과 공간변화를 파악한다.
- 2) 가정행사 공간과 시대별 생활공간의 변화를 파악한다.

## II. 연구방법

연구는 설문법에 의했으며, 설문지는 선행연구<sup>1)</sup>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조사내용은 조사대상 가정의 일반적 특성과 주택특성, 친척과의 교류정도, 일상생활행위와 가정행사<sup>2)</sup>가 이루어지는 공간 등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조사대상은 서울지역 대학생 자녀 가정의 주부와 대학생으로 한정 하였다.<sup>3)</sup>

조사시기는 시대 변화의 영향을 파악하고자 1992년과 2000년에 조사하였다. 1992년은 총 15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103부(68.7%)를, 2000년은 총 145부를 배부하여 91부(62.8%)를 최종분석

1) 进田富美子, 宫崎祐子(1992), 宫崎祐子(1993)의 선행 연구를 참고하였음.

2) 비일상적인 생활행위인 가정행사는 전통적행사 5가지(신정, 구정, 대보름, 추석, 제사) 인생의례 4가지(백일잔치, 돌잔치, 부부의 결혼기념일, 부모님의 환갑·고회), 탄생일 5가지(아버지, 어머니, 남편, 주부, 자녀 생일), 축하행사 5가지(자녀입학, 자녀졸업, 자녀취직, 승진, 집들이), 기념일 및 기타 3가지(어린이날, 어버이날, 크리스마스)로 분류하였다.

3) 대학생 자녀를 가진 가정은 가족생활 주기 상 다양한 가정행사를 거의 경험하였을 단계이므로 본 조사의 연구 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에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WIN7.5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과 평균 등의 분석을 하였다.

## III. 조사 결과

### 1. 조사대상 가정의 특성

조사대상 가정은 조사연도에 상관없이 부부와 2~3인의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이 지배적이며 50대 초반의 가정은 학력정도가 높고, 사무·행정·관리직(1992년), 생산·판매·서비스직(2000년) 종사자가 많았고, 가정의 소득 수준이 높으며, 기독교 가정이 다소 많은 특성이 있었다. 또한 30~40평형대의 집합주택에 거주하는 가정이 다소 많고, 친척과 교류 빈도가 비교적 높은 가정이 주류를 이루었다. 따라서 이들 조사대상은 여러 측면이 유사하여 비교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 2. 일상적 생활행위의 공간 변화

일상생활행위는 거실, 안방, 부엌·식당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적 생활 행위를 중심으로 조사하였으며 시간의 경과에 따른 생활행위의 공간 변화는 <그림1, 2>에 제시하였다.

단란행위를 살펴보면 대부분 거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1992년은 74.8%, 2000년 91.2%), 그 다음이 안방(1992년 16.5%, 2000년 6.6%), 부엌·식당(1992년 8.7%, 2000년 2.2%)의 순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단란행위는 거실로 이동하였다.

식사행위는 부엌·식당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1992년 89.3%, 2000년 86.6%), 다음이 거실(1992년 6.8%, 2000년 9.9%), 안방(1992년 3.9%, 2000년 3.3%)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로 보아 부엌·식당이 주된 식사공간이나, 시간의 경과에 따라 거실에서의 식사행위가 증가하는 경향이 보였다.

손님접대는 거실(1992년 82.5%, 2000년 90.1%)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안방(1992년 14.6%,

2000년 2.2%), 부엌·식당(1992년 2.9%, 2000년 6.6%)의 순으로 거실이 손님접대의 중심장소이며 안방에서 이루어지던 손님접대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거실과 부엌·식당으로 분산 이행함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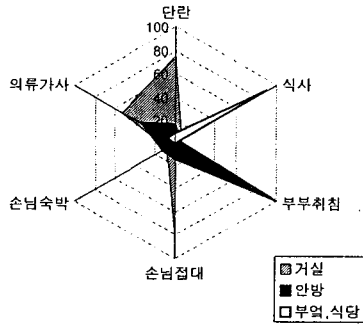


그림1. 일상적인 생활행위의 공간(199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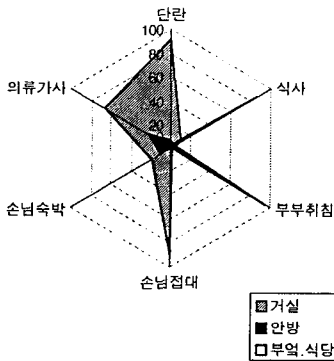


그림2. 일상적인 생활행위의 공간(2000년)

부부취침은 연도에 상관없이 안방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주택에서 안방은 부부의 개인 생활공간으로 정착했음을 알 수 있다.

손님숙박은 중간방(1992년 58.3%, 2000년 64.8%)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1992년은 작은방(21.4%)이었으나 2000년은 거실(18.7%)로 그 순서에 차이가 있었다. 또 안방에서의 손님숙박도 10% 내외(1992년 12.6%, 2000년 9.9%) 있

었다. 즉, 공적 개방공간인 거실과 사적 공간인 안방에서도 손님숙박이 이루어지는 점이 주목되었다.

의류관련행위(빨래 개키기, 옷손질, 다림질 등)는 거실(1992년 52.4%, 2000년 65.9%), 다음이 안방(1992년 34.0%, 2000년 23.1%), 그 외 부엌·식당은 연도에 관계없이 약 8%, 이어서 자녀방(1992년 5.8%, 2000년 2.2%)으로 거실에서 의류가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한편, 안방에서의 그 비율은 감소하는 경향이 보였다.

### 3. 가정행사공간의 변화

가정행사는 주거와 외부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자기집에서 행할 경우만을 대상으로 주거 공간에서 발생하는 가정행사를 거실과 안방<sup>4)</sup>을 중심으로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표1>는 지면관계 상 생략한다.

가정행사 공간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거실이 행사의 주된 공간이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안방에서 이루어지는 비율이 감소함을 알 수 있다. <그림3,4><sup>5)</sup> 1992년은 거실(마루) 중심적이거나 안방에서도 거행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보였으나, 2000년이 되면서 안방에서의 거행정도가 더욱 감소하여 거의 거실중심으로 가정행사가 이루어져 거실은 공적인 공간, 안방은 사적인 공간으로 고착화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행사별 거실과 안방의 사용비율을 살펴보면 전통적 행사, 인생의례, 탄생일, 축하행사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거실의 사용비율이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안방의 사용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전통적 행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살펴보면 1992년은 신정, 대보름, 추석(음력)은 거실과 안방의 사용 비율이 약 5:3 정도로 나타났으며, 구정은 거실과 안방의 사용 비율이 거의 비슷하고, 제사는 유일하게 안방에서 이루어지는 율이 거실

4) 비밀상적인 생활행위(가정행사)는 주로 거실과 안방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이들 공간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5) 각 영역별 행사들을 합하여 평균을 구한 값임

보다 높았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제사는 안방에서 거실로 이행하여 거의 모든 행사가 거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안방에서 이루어지는 비율이 현저히 감소하였다. 즉, 우리 주거에서 가장 전통적인 성격을 지닌 안방에서 이루어지던 전통적 성격의 제사가 서구적인 성격을 지닌 거실로 이행하였음은 안방공간의 성격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로 공간사용의 서구화 경향으로 지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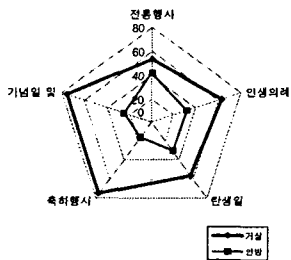


그림3. 거실과 안방의 비일상적 생활행위(19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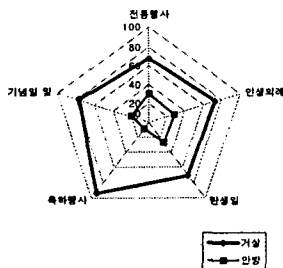


그림4. 거실과 안방의 비일상적 생활행위(2000)

인생의례는 연도에 상관없이 모든 행사들이 거실에서 이루어지는 비율이 높았는데 특히, 백일잔치와 돌잔치는 거실과 안방의 비율은 약 5:4 (1992년)에서 약 7:3 (2000년)으로 변하여 거실중심성이 확실해졌다

탄생일 행사는 거실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1992년은 부모생신은 거실과 안방의 사용 비율은 약 5:4로 큰 차이가 없었으나 부부는 약 6:3, 자녀는 약 6:2의 비율로 젊은 세대로 갈수록

거실 사용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 안방과 거실 외 부엌·식당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일부 있었는데 자녀의 경우는 그 비율이 더 높았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거실중심의 경향이 더욱 뚜렷해졌다.

축하행사는 연도에 상관없이 거실에서 주로 이루어져 거실중심 행사라 할 수 있다.

기념일 및 기타행사는 서울지역은 거실 쪽이 많았는데, 1992년은 어버이날은 거실과 안방의 비율이 2:1 정도이었으나, 2000년에는 약 8:2의 비율로 거실로 상당히 이행하였으며, 어린이날은 연도에 상관없이 거실중심인 행사이었다. 또 크리스마스는 연도에 상관없이 거실중심의 행사이었으며 행사가 거실로 거의 이행되는 경향이 있었다.

#### IV. 결론

대도시 가정의 일상생활행위와 가정행사 공간 및 이의 시대변화를 살펴본 결과를 요약하고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 1) 일상적 생활행위의 공간변화를 보면 거실은 가족의 단란 장소이면서 손님의 접대와 의류가사가 이루어지는 복합적 기능의 공간이었다. 특히, 시간의 경과에 따라 거실의 가족 단란 기능은 더욱 강화되었고, 식사기능도 다소 증가하여 이를 지원할 거실 공간계획이 요구되었다. 안방은 부부의 취침이 주로 이루어졌으나 시간의 경과에 안방에서 이루어졌던 일부 단란이 거실로 이행하였고, 일부 이루어지던 의류가사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대도시 지역의 안방은 부부의 개인공간으로서의 성격이 짙으므로 이에 대응한 공간계획이 요망되었다.
- 2) 비일상적인 생활행위의 공간변화를 보면 전반적으로 '집'에서의 가정행사의 중심공간은 안방과 거실(마루)로 나타났다. 과거에 안방에서는 전통적인 행사와 탄생일 등의 행사가 다소 많이 이루어졌고, 세대별로는 부모, 부부세대와 관련된

행사를 위한 공간이었다.

한편, 거실에서는 축하행사 및 기타 행사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하였고 세대별로는 자녀세대와 관련된 행사가 주로 이루어져 부모세대와 행사공간이 대비되었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경향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하여 안방에서 이루어지던 가정행사가 상당 부분 거실로 이행하여 현재의 가정행사 공간은 행사의 종류와 성격에 관계없이 거실에서 이루어지는 특징이 보였다.

3) 우리나라의 거실은 일상생활행위와 가정행사를 전반적으로 수용하는 공간이므로 이를 감안한 공간계획이 요구된다.

#### 참고문헌

1. 김계동,이영호(1998).현대주거에서의 의례관별 의례행태 분석.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4(5), pp.83-92.
2. 윤재웅,이미혜(2000).도시 단독주택 거주자들의 안방에 대한 인지성향과 공간사용방식. 한국주거학회 11(3), pp.65-73.
3. 金相希(1989), 韓國住宅の住様式の近代化に關する研究-バン(房)とマルの關係からみて,大阪市立大學生活科學研究科,博士學位論文.
4. 宮崎祐子(1993),日本と韓國の都市住宅における空間構成に關する研究-行事の行われ方を中心に-.修士論文.
5. 逆田富美子,宮崎祐子(1992).日本,韓國における接客生活の實態,日本建築學會大會學術講演更概集.